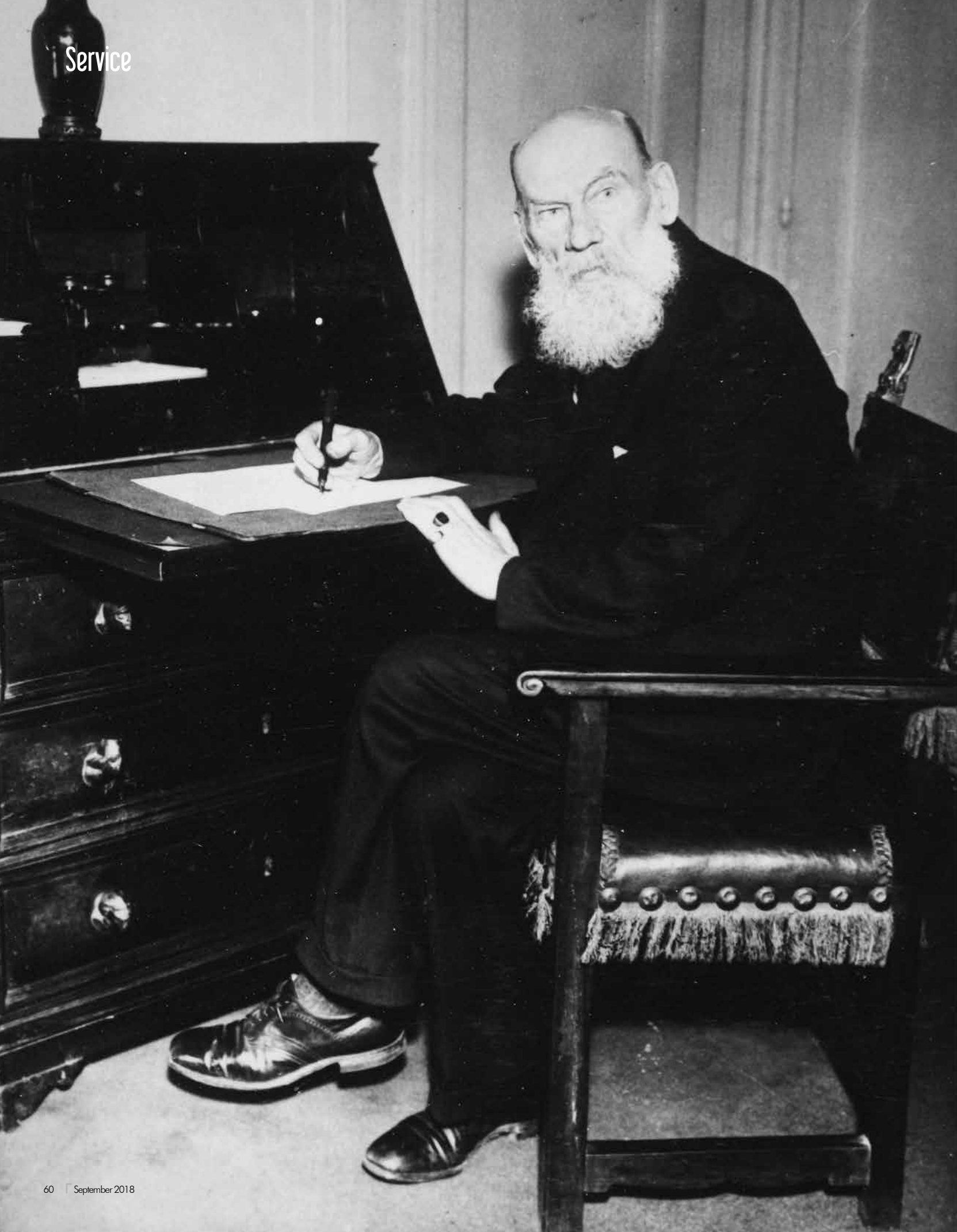


“어떻게 살 것인가” 절제 나눔 베풂을 주장한 톨스토이

테니스는 그에게 ‘쾌락’인 동시에 ‘죄악’이었다

1896년, 톨스토이가 자신의 저택 뜰에서 테니스를 하는 모습

여기 흑백의 사진 한 장이 있다. 러시아 야스나야 폴랴나. 그곳에 위치한 그의 저택 정원 한 켠에 울창한 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테니스 코트가 있다. 그리고 오른손에 나무 라켓을 든 노년의 남성이 카메라를 바라본다.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세계적인 사상가인 레프 톨스토이다. 1896년, 그가 68살이 되던 해에 찍힌 이 사진을 보며 톨스토이에게 테니스란 무엇이었을까 궁금증이 몰려왔다.

소설 〈안나 카레리나〉와 〈부활〉에서도 등장 인물들이 테니스 치는 장면을 묘사했던 톨스토이도 테니스를 좋아했구나, 괜한 동질감과 반가움이 느껴져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 테니스는 그에게 취미 그 이상이었다. 즐거움이자 동시에 죄의식을 안겨준 애증의 그 무엇이었던 것. 평생 도덕을 갈구하며 현실과 이상에서 괴로워했던 그의 삶을 테니스를 통해 되짚어본다.

글_ 하정화 객원기자 **참고자료_** 〈톨스토이를 쓰다〉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정거장〉 〈톨스토이의 인생일기〉

톨스토이의 소설 속에 등장한 ‘테니스’

더 뉴요커의 테니스 칼럼니스트인 제럴드 마조라티는 어느날 우연히 온라인 문학 사이트(Tumblr feed of The Millions)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흰색 수염을 기른채 정장을 차려 입고 나무 라켓을 들고 있는 노인, 바로 톨스토이였다. 그리고 ‘The Bud Collins History of Tennis’라는 사이트에서 1896년에 찍은 사진(위 사진)을 비롯해 몇 장의 사진을 찾게 된다.

톨스토이가 테니스를 하는 모습을 찍은 사람은 누구일까. 아내 소피아로 추측이 되는데1880년대 말에 사진 찍는 기술을 배운 그녀는 수 백 장의 가족 사진을 남겼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라켓을 들고 테니스 경기를 하고 있으며 네트 건너편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보인다. 아마도 그의 딸일 것이다(톨스토이는 13명의 자녀를 낳았고 톨스토이의 일기를 보면 딸이 테니스 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내용이 있다).

톨스토이가 1828년에 태어났으니 사진 속 그의 나이는 68살. 60대의 노년에 테니스를 즐기고 있는 톨스토이의 사진을 단순하게만 볼 수 없는 것은 그가 이전에 썼던 소설에서 묘사한 테니스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부활〉 등 소설을 통해서 물질주의와 도시생활에 대한 환멸, 예술과 오락에 대한 경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았다. 그렇기에 소설 속 테니스에 대한 묘사도 비슷한 관점으로 적혔다. 특히 그가 49살에 완성한 17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대하소설 〈안나 카레리나〉는 여주인공 안나의 죽음을 통해 상류층의 모든 것을 비판한다. 안나가 사랑하는 브론스키와 살기 위해 떠난 집에는 ‘크로켓(테니스) 코트’가 있었다. 톨스토이는 테니스가 일시적인 유행을 쫓는 고급스러운 부자들의 새로운 취미라고 생각했다.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부유한 사람들을 잠시 열광케 하는 아이같은 경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것은 소설 속에서 잘 드러난다.

안나 카레리나, 6장 챕터 22장을 보면;

“식사 후에 모두들 잠시 테라스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테니스를 하기 시작했다. 경기자들은 두 패로 갈려 정성껏 반반하게 골라놓은 크로켓 그라운드의 도금이 된 말뚝에 팽팽하게 쳐진 네트 양쪽으로 나누어 섰다. 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도 같이 해보려고 했으나 오랫동안 치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겨우 터득했을 때에는 완전히 지쳐버렸기 때문에 바르바라 공작영애 옆에 앉아서 경기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파트너였던 투쉬케비치도 마찬가지로 그만두었다….

스비야쥬쉬와 브론스키는 둘 다 아주 잘, 그리고 열심히 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쪽으로 오는 공의 방향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허둥대거

나 어물어물하지 않고 재빨리 공 쪽으로 뛰어가서 튀어오르길 기다렸다가, 빠르고 정확하게 라켓으로 공을 쳐서 네트 건너편으로 넘기는 것이었다. 베슬로프스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서툴렀다. 그는 너무나 흥분해 있었다. 대신에 타고난 쾌활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돋우는 역할을 했다. 그의 웃음소리와 외침 소리는 잠시도 그치지 않았다. 그도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프록코트를 벗었다. 새하얀 셔츠 소매를 드러낸 채 상기되고 땀에 젖은 얼굴을 한 그의 건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그 시원시원한 동작과 함께 뚜렷하고 생생하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그날 밤 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도 잠자리에 들어가서 눈을 감자마자 크로켓 그라운드를 뛰어 돌아다니는 바세니카 베슬로프스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눈앞에 보았던 것이다.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유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와중에도 역시 계속되고 있는 바세니카 베슬로프스키와 안나의 희롱하는 태도며, 아이도 없이 어른들끼리 어린애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부자연스러움이 거슬렸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또한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잠시 쉬고 나서 또 경기에 어울려 유쾌한 척 하고 있었다. 그날 온종일 그녀는 자기보다 능숙한 배우들과 연극을 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자기의 서투른 연기가 무대 전체를 망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맛보았다"

1870년대에 이 소설을 집필한 톨스토이. 테니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던 시기와도 비슷하다. 16세기, 프랑스에서 귀족들간에 유행한 '쥬드폼'이라는 라켓을 사용한 공 넘기기 게임이 1873년, 워터 크랩톤 윙필드라는 영국 소령에 의해 영국에서 재탄생했다. 당시에는 '스파이리스타이크(Sphairistike, 그리스어로 공으로 경기하는 기술이라는 뜻)'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론테니스의 원조였다.

1874년 윙필드는 테니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독일에서 수입한 고무공과 네트, 지지대, 코트 마커, 라켓, 경기 설명 매뉴얼을 세트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중 하나가 러시아 한 농장의 대지주였던 톨스토이가 살던 집으로 보내졌을 것이고 톨스토이도 여느 부유한 사람들처럼 테니스를 접하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소설 속에도 테니스 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된 것. 귀족들의 스포츠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던 톨스토이였지만 테니스는 그가 사랑하는 취미였다.

톨스토이 주변인들이 증언한 테니스에 대한 애정

톨스토이가 그의 삶에서 한때 테니스를 경멸했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노년에 테니스를 즐겼고 이래도 괜찮은가 늘 갈등하는 삶을 살았다.

톨스토이는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에, 젊을 때부터 체력이 남달랐고 운동을 무척 좋아했다. 67세에 처음 자전거를 배우고 70세에 스케이트를 탔으며 80세에는 체조를 했고 죽기 직전인 82세에도 말을 타고 20여 킬로미터나 질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하루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다. "말년에 매일 체조를 하며 체력을 길렀다. 오늘 아침에 택한 운동은 팔굽혀펴기다. 숨이 차

톨스토이에 관한 여러 자료와 사진을 통해 톨스토이가 테니스를 꽤 즐겼음을 알 수 있다

The Lounger 105

apropos his recent visit to Yasnaya Polyana, where he passed several days with the Count and his family. Among other items he notes that Tolstoy's beard, which was until lately gray, is now entirely white, and that his health is much improved owing to the fact that he has given up hard labor in the fields and has substituted cycling, tennis, walking, and swimming.

It appears that the Prophet of Toula has become more rigorous in his adherence to the principles of vegetarianism, he having excluded even milk and eggs from his daily fare. In this as in many points the Countess differs radically from her husband and always insists on serving meat. Thus while at table the Count is particularly solicitous of those who eat only vegetables; the Countess on her side never failing to see that the "carnivorous" lack nothing in the way of viands. In matters of diet, as of intellect and of spirit, the sons follow their mother and the daughters their father.

Tolstoy's passion for physical exercise often finds naïve and even startling expression. While strolling about the grounds indulging in an animated theological discussion with M. Halpérine-Kaminsky, he suddenly stepped into a bath-house which bordered a miniature lake, donned a bathing suit, and swam violently about for some minutes while his guest watched the operation from the bank.

Tolstoy usually works from eight in the morning until three, at which hour the family assemble for dinner. He is now engaged on a new historical romance dealing with life in the Caucasus during the stirring days of Schamyl, much of the local color for which he obtains from the lips of an old general who participated in the campaigns. Whether this work is to be finished or not will depend on the outcome of the aged author's present severe attack of illness.

A few weeks ago Mr. Jeremiah Curtin called at my office for a little chat, having just returned from a trip

TOLSTOY PLAYING TENNIS

고 관절이 우드득거릴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톨스토이가 자신의 일기나 다른 어디에서도 테니스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대신 톨스토이를 가까이서 관찰했고 그의 전기를 썼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 톨스토이가 테니스를 얼마나 즐겼는지 추측해볼 수 있다.

동시대를 살았고 책에서 톨스토이의 도덕과 관련된 성격에 대해 서술했던 세르겐코는 "톨스토이가 그가 소유한 아스나야 폴랴나 저택의 테니스 코트에서 매주 테니스를 즐겼다"고 진술한다. 세르겐코는 그가 직접 보았던 저녁식사 후의 경기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선수들이 코트에서 뛰고 경기하고 소리지르고, 그들 사이에 볼이 퀭한 톨스토이가 있다. 톨스토이는 화를 내지 않고서 격렬하게 경기했고 톨스토이의 근육 덕분에 상당히 힘든 이 운동을 할 여유가 있었다."

톨스토이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친구가 됐던 루이스의 남편, 알머 마우드는 톨스토이보다 30살 아래였다. 톨스토이의 전기에서 그와 테니스를 했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의 경기는 당시 1890년대 영국에서 남자들이 주로 구사하던 하드 히팅으로 진화한 경기는 아니었다. 로브를 띄우면서 랠리를 오래하는 스타일이었고 네트 위로 아치를 그리는 언더 핸드 서브를 구사했다. 톨스토이는 진지했다. 그는 근시가 꽤 있었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아주 빨랐고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내가 좀더 경기를 능숙하게, 적절하게 잘 하는 편인데도 그가 세트를 이겼기 때문이다".

테니스를 하고 나서 쾌락을 추구한 자신을 채찍질

톨스토이는 전통적인 가문에서 풍족하게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왔다. 게다가 소설가로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얻으며 40대를 보냈다. 이렇듯 젊은 시절에는 근심없이 여유롭게 살았지만 50살이 되면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죽음의 허무함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도덕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삶을 살았다.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톨스토이는 늘 자신의 욕구와 이상 사이에서 고민했다. 테니스를 비롯해 승마와 자전거 등 운동을 좋아했지만 마냥 편하게 즐길 수만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밤마다 책상에 앉아 운동을 하고 즐거움을 추구했던 자신을 채찍질했다.

톨스토이의 아침은 자신에게 온 수많은 편지를 전달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톨스토이의 집에서 하인들이 테이블 위에 은제 식기들을 늘어놓고, 흰 장갑을 끼고 식사 심부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또 톨스토이가 가까운 친구들과 테니스로 흥이 나있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환멸을 느껴 "그는 물이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신다"고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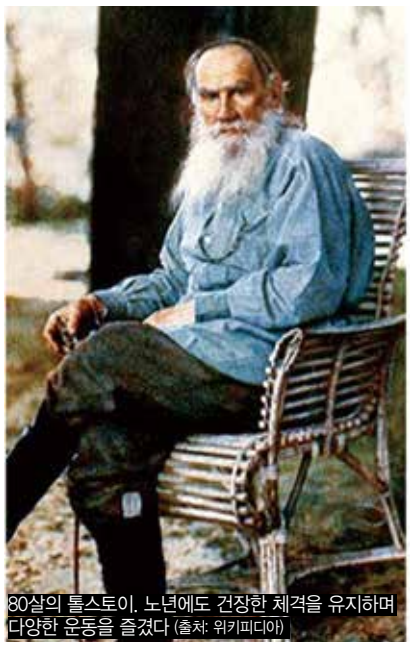
톨스토이는 그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무척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솔직하게 인정했고 번민을 토로하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식사 후 테니스 경기를 즐기곤 했던 톨스토이는 하루를 마감하는 일기장에서 "잘못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소년처럼 단순히 스스로 즐기는 거라면…"이라고 쓰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저 밖에는 가난한 농부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한낱 공을 쫓아다니며 희희낙락해도 괜찮은 걸까" 하며 나태하고 쾌락을 추구한 자신을 끊임없이 꾸짖었다.

7살 아들이 죽어 실의에 빠졌을 때도 톨스토이는 새로운 운동을 통해 아픔을 치유했다. 모스크바 소사이어티(The Moscow Society of Velociped-Lovers)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주고 톨스토이가 자전거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톨스토이는 자전거 타기를 테니스처럼 좋아했고 그의 일상이 되었다. 매일 아침 일을 끝내고 자전거를 탔던 그의 행동은 몇몇 소작농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의 친구들과 추종자들도 아이같이 자전거를 즐기는 그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테니스 하고 자전거 타는 것이 그렇게 나쁜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도덕적인 삶, 금욕을 강조하는 인생을 강조했던 톨스토이였기에 또 귀족들을 비난하는 소설을 통해 위안을 받았던 농민들도 많았기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이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것.

〈톨스토이를 쓰다〉라는 책에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톨스토이의 말을 토대로 한 그의 하루'라는 부분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

"그는 근육이 근질근질하고 육체의 갈망을 참을 수 없어서 잠시 딸아이의 테니스 경기를 바라본다. 민활한 육체놀이의 순박함에 이끌리는 것이다. 노인은 몸동작 하나하나를 흥미롭게 바라보다가 멋진 스트로크가 성공할 때마다 호탕하게 웃어 젖힌다. 그의 우울한 심사가 부드럽게 누그러져서, 흥겹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웃음을 터뜨린다"라고 적혀 있다. 내적 갈등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마음껏 경기를 즐기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있다.


80살의 톨스토이. 노년에도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며 다양한 운동을 즐겼다 (출처: 위키피디아)

1897년 톨스토이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또 부유한 농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당시에 "나이든 종교적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마지막 세월을 오락과 놀이에 보내고 수다나 테니스에 전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헌신하려는 소망을 느낀다오"라며 자신의 감성을 밝히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1910년 다시 집을 나와 진짜로 도피하지만 어딜 가나 톨스토이를 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코 고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삶의 진리를 파헤쳤던 톨스토이는 눈을 감는 순간, 진정한 고독을 접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았을까.

19살 때부터 일기를 쓰며 자신을 통찰하고 자기 삶에 대해 감시했던 톨스토이. 50세에 이르면서 "삶은 멈춰섰고 그것이 무서워졌다"고 말한 그는 예술가였지만 예술을 미워하고 귀족이었지만 귀족을 증오했으며 대작(大作)을 쓰고도 부정했고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지만 지성을 증오했다. 이렇듯 모순을 짊어지고 살아야했던 톨스토이. 어쩌면 테니스도 톨스토이에게는 즐거움인 동시에 괴로움이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조차도 마음껏 누리며 살지 못했던 그에게 연민이 느껴진다.